

# 金鍾漢의 일본 유학 체험과 ‘순수시’의 시론\*

- 발레리,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 체험과 관련하여 -

沈 元 燮\*\*

차 례

I. 머리말	IV. 자율적 시관과 ‘최고의 순간’이 의미하는 것
II. ‘觀念의 肉化論’과 대학시절의 독서 풍조	V. ‘순수시’의 이상과 현실
III. ‘최상의 자기’를 모방하라 - 발레리의 시 수행론(修行論)	VI. 결론

국문초록

김종한은 조건부 대일협력론인 ‘신지방주의’만 펼쳤던 평론가가 아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2년간 일본에 체류하던 시절, 국내에 발표한 시 관련 평론을 통해서 전혀 상이해 보이는 문학관을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발레리, 브루노타우트, 호프만스탈 등 일본에서 접한 서구문학 및 예술 체험을 기반으로 한 평론들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는 발레리 체험을 통해서, 시의 독자성과 자율성, 그리고 ‘최고의 상태에 이른 자신을 모방하라’는 원리를 소개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완벽한 인격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씌어지는 시를 이상적인 시라고 주장했

\* 본 논문은 2006-2008년도 日本學術振興會 科學研究費 補助金の 지원으로 씌어졌음.

\*\*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객원교수

다. 부르노 타우트와 호프만스탈을 원용하면서도, 시인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을 압축적 형태로 표현하라, 단순 속에 무한을 표현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의 상태를 종교적 범열이나 신과의 합일, 깨달음 등의 수행문화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적 시의 상태를 종합하여 ‘순수시’라고 명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서 ‘순수시’를 실천한 모범적 예로서 정지용을 들었으며, 사상을 예술적 형상성의 위에 놓는 프로시 계열의 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경우는 ‘순수시’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유보조건을 달아놓았다.

그가 당시 시의 이상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내용의 골자는, ‘종교적 수행에 근사한 내적 수행을 거쳐 완전한 인격에 이른 자가 압축적 형식으로 우주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일체의 인간적인 제조건을 초월해가는, 내적 수행의 세계’다. 그러므로 그가 제기한 시의 이상형은, 단기간에 완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김종한 자신도 그 실천을 기약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문학관을 설파하던 그는 1942년 『국민문학』의 공동편집자가 되어 ‘신지방주의론’의 설교자로 변신하는 한편 전쟁 협력시 역시도 쓰게 된다. ‘명상적 철학도’가 되어야 할 ‘발레리 숭배자’가 시국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가장 ‘속’적인 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주제어 : 김종한, 친일문학, 신지방주의론, 순수시, 발레리,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 한산시, 일본유학생, 정지용, 임화, 국민문학

## I. 머리말

김종한은 자신의 일본 체험과 관련된 기록을 다수 남긴 문인 중의 하나다. 특히 그가 시국관련 작품을 발표하던 시기에 씌어진 「새로운 史詩의 創造」(1942) 및 일어서집 『어머니의 노래』(1943) 발문에 수록된 그의 회고담은 이 방면의 기록으로서 단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을 띠

고 있다. 이 속에 언급된 일본 및 서양 문인 및 작품명들은 小林一茶, 鈴木三重吉의 단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프랑시스 잠, 모리스 발레스, 柳田國男, 福士幸次郎, 森鷗外 등인데, 이 항목들은 김중한의 독서력에 관한 유일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大村益夫교수의 논고(1979, 2007) 속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김중한의 신지방주의론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 모리스 발레스 등에 관해서는 상당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어 있다.<sup>1)</sup>

한편, 김중환이 남긴 기록들 중에는, 위와는 성격이 또 다른 기록들이 발견된다. 그가 일본대학 예술과를 졸업하고 婦人畫報社에 근무하는 한편으로 국내문단에 평문과 시를 발표하면서 '제2의 김문집'으로 활동하던 시기(1938-1940)에 발표한 글들이 그것이다. 이 글들 속에서 그가 제시한 서양 인명은 테에느, 포오, 말라르메, 보들레르, 발레리 등의 상징주의자와, 니이체,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 세실 코노라이 등이다. 이 시기의 그는 자신의 문학관의 사상적, 문학적 근거로서 '순수시', '영원' '최고의 상태', '최고의 자기' 등의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이 시기의 김중환은, 그의 문학 활동의 표제어처럼 불리고 있는 '신지방주의론'의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 김중환의 문학 체험 중, 그의 시관 내지 문학관을, 그가 가장 많이 인용한 발레리, 그리고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 한산시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기로 한다. 김중환이 쓴 모든 자료는 『金鍾漢全集』에서 인용한다.<sup>2)</sup>

1) 大村益夫, 「金鍾漢について」(『旗田巍先生朝鮮歴史論集, 下』 1979.3), 大村益夫 「세 시인의 궤적」(인하대학교 강연원고 2007.6)

2) 藤石貴代, 大村益夫, 沈元燮, 布帶敏博 공편, 『金鍾漢全集』(綠蔭書房, 2005)

## II. ‘觀念의 肉化論’과 대학시절의 독서 풍조

김중한의 국내 평단 데뷔작에 해당하는 것은 1939년 9월 문장에 발표된 「나의 作詩 設計圖」다. 그러나 김중한은 이전에도 당시 문학체험을 엿볼 수 있는 단문들을 발표한 적이 있다. 김광섭의 시집에 대한 평문 「詩集 『憧憬』 讀後感」(1938.10), 대학시절의 수필 「卒業을 앞둔 藝術의 殿堂」(1938.10)이 그것이다. 차례대로 본다.

우리에게 너무 큰 불행은 시집 『동경』 중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 예술적 현실 또는 추상된 세계 이전의 지점에서 영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해하다면 그것은 「발레리」와 같은 의미의 난해가 아니라 「요설」의 난잡성에 기인하는 난해일 것이외다....

시인은 인생비판이나 사회비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의 예술시, 즉 서정시를 창작할 때는 그러한 관념을 노출하거나 논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자가 현학적인 육체화되지 못한 시론에 얽매히워 타고난 풍부한 시정(서정정신)까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곳이었습시다.<sup>3)</sup> (밑줄; 인용자)

위의 글에서 돋보이는 점은 그가 ‘서정시’를 ‘순수의 예술시’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뒷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 번째 요점은 이 글이, 시창작 방법론의 기본 항목, 즉 ‘관념의 육화론’을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념의 육화론’은 당시까지는 그렇게 진부하지 않은 논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소년기 김억의 문학적 스승이었던 김억의 논리를 그대로 연장해놓은 것이기도 하다.<sup>4)</sup>

세 번째는 발레리의 등장이다.

3) 김중한, 「詩集 『憧憬』 讀後感」, 『海峽』(三文社) 1938.10, 375-377쪽.

4) 심원섭, 「金鍾漢의 초기문학 수업 시대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46집, 2007.8) 317-325쪽.

바레리-를 말할수업는 사내하고는 연애 안할테야--라고 피녀가 선언한것이 우리들의바레리-열을 배가시킨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중략>

지하실 - 거기는 [조선학생동우회]라는 간판이 부터잇습니다...<중략>

우리는 이 어두컴컴한 지하실을 중심으로하고 멀리 [신곡]으로부터 [유리씨즈]까지의 명작을 연구했스며 테-누의 [예술철학]을 독하고 바레리-의 [시학서설]을 논하얏던 것입니다.

화제는 미술로 영화로 음악으로 연극으로 미치지안는곳이없섯습니다.

때로는 초현실과 야수파를 발하야 예술관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또 는 도쓰토에프스키를 끄집어내여 사색의 기피를 타기도 하얏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월. ....졸업!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단어 외다. 아무리 훌륭한 바레리-론도 취직선전에서는 하등의 효과를 못가지기 때문입니다.5) (밑줄; 인용자)

김중한의 일본대학 재학시절의 독서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일본 유학생들의 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계문학전집, 도스토에프스키와 같은 러시아 작가에 대한 경도, 그리고 테에누의 『예술철학』과 발레리의 『시학서설』이 유행 중이었다는 사실, 특히 발레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최상의 자기'를 모방하라 - 발레리의 시 수행론(修行論)

김중한은 일본대학 졸업 후 『婦人畫報』지의 기자로 일하면서 수편의 단문을 썼는데, 이 중에는 발레리를 적극 인용한 글이 하나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실한 새로움」일까요. / 그 답으로는 역시 **발레리**

5) 김중한, 「卒業을 앞둔 藝術의 殿堂」(『朝鮮日報』 夕刊 1938.12.26)

의 탁견을 인용하는 것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A)---독창성을 바라서는 안 된다. [중략] 아침에 독창적이었던 것은 [중략] 그것이 현저하게 참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저녁에는 원래 새로웠던 그것이 진부해지면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가진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 낡은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것도 경멸하라...[중략]...현대 시인 중에서 가장 새롭다고 기억되고 있는 발레리가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일단 신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

발레리는 10년 전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인이란 귀중한 보물이지요.

B)--- 예술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모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간요하다.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델로 해야 한다.

하여튼, [당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델로 해서 당신의 핸드백, 모자, 양복지의 색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sup>6)</sup> (A,B는 인용자가 첨가. 밑줄 인용자)

새 유행을 갈구하는 부인들에게 개성적인 패션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다. 부인용 주간지 속에 발레리가 등장하는 것이 다소 희극적이나,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당시 김중환이 갖고 있었던 발레리 이해의 요약적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인용한 발레리의 발언 요점은 두 가지다. 첫째, 새로움과 독창성은 한시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 두번째 자기 자신을 모방하되,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방하라.<sup>7)</sup>

일반적으로 ‘독창성’이란, 데뷔를 꿈꾸는 문학도들이 간직하고 있는 금과옥조의 하나다. 자신 역시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김중환이 이를 부정하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어 김중환은 그 ‘독창성’

6) 김중환, 「詩人が語った「新しさ」について」(『婦人畫報』, 1939.8) 줄역. 이하 김중환이 썼거나 인용한 모든 일문도 줄역이다.

7) A의 인용 근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미확인. B는 佐藤正彰篇『世界文豪讀本ブアレリイ篇』(第一書房, 1938.6) 222쪽에 그 정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문학잡지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었던 요약적 지식, 혹은 강의 등을 통해서 김중환이 이를 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높은 차원에 존재한다는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한다. 외부세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에서 발견하라, 단 일상 차원의 자신이 아니라 모종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차원의 자신을 모방(표현)하라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일단 김중환이 중시하고 있었던 발레리의 이런 세계는, 그 사상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질세계의 운동과정을 중시하는 유물론의 반대 지점, 즉 주관세계 내지 인격적 이상의 실현을 중시하는 관념론 사상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이런 점에서 1930년대 일본유학생 문인 중의 하나인 김중환의 사상적 지향점의 하나가 여기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김중환이 강조한 발레리의 '최상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국내에 번역 소개된 다음의 업적 중에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르셀 레몽에 의해 씌어진 발레리론의 일부를 인용한다.

“단 한 번도 제신을 닮아보고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발레리로 볼 때 정신적 인간의 고유한 목표는 자아 속에서 순수한 의식이 아닌 일체의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194쪽)

이같은 지적 금욕의 끝에 이르면 순수한 자아는 하나의 우주적 점으로, 개체로서의 버팀대를 상실한 하나의 이름없는 힘으로 변하고 만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려는 듯이 발레리는 이렇게 말한다. 정신의 인간은 “마침내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으려는 무한한 거부 그 자체로 집약되려고 고의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자기에 대한 절대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천성과 삶에서 떨어져 나오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 천성과 삶을 부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우리는 발레리가 일체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삶(평범한 의미에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무한한 주의를 기울이는 기이한 종류의 신비주의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5-196쪽)

8) 久野修·鶴見俊輔(줄역) 『日本近代思想史』(문학과지성사,1994) 11-32쪽 참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것, 근원적인 것까지 길을 트고 삶의 원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속에 숨은 “우리 자신의 실재”에 도달하는 일이다. 202쪽)

“살려고 애써야 한다”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일단 절대적인 자기인식과 자기 통어라는 신기루에 홀려본 사람에게는 마지못한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 214)<sup>9)</sup> (밑줄;인용자)

위의 기록으로 보건대는, 발레리의 인생의 목표 내지 삶의 과정이란 결국 “순수한 의식” 혹은 “순수한 자아” 내지 “우리 자신의 실재”의 실현에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의 실현 과정은 일체의 불순한 것들(평범한 의미에서의 감정과 정신의 세계)을 끊임없이 배제해 가는 과정이다. 그 노력은 결국 “제신을 닮아보고자 기도”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은 실은 ‘神과의 합일’(기독교)이라든가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는 것’(선불교)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수행과 그 논리적 골조가 거의 다를 바 없다고도 생각된다.

다음은 시에 대한 발레리의 생각을 소개한 부분이다.

말라르메와 마찬가지로 발레리도 말을 사고의 전달에 적합한 의사 교환의 도구로 - 일단 그 기능을 완수하면 소멸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을 암시력과 심리적 창조력에 따라 결합시켜 사용한다. 독자의 총체적 자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내면에 자연보다 더 강력하게 비범한 활력과 감동을 촉발시키는 데 시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노래이기는 커녕 삶에서 이끌어낸 것이고 항상 삶 그 자체처럼 애매한 것인 시는 여러 가지의 분위기가 압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초자연을 형상화한다.

폴 발레리는 [중략] 철학은 “그것이 사용하는 도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루는 대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

9) 마르셀 레몽(金華榮 역), 『프랑스 현대시사』(문학과지성사, 1983.10) 각각 202, 210, 211쪽.

하기를 그는 즐겨한다. ....[중략].....시는 일체의 교육성과 무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의 과육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며 번역되지 않는 것이다. 시는 끊임없이 이미지들과 음악의 명암 속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시를 활성화시켜 주는 원천과의 접촉을 단절하는 법도 없고, [중략] 동시에 시 전체가 철학적 반성을 유도한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심화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무시한 채 오로지 근본적인 것만을 포착하려다 보면 마침내는 개인적인 것, 특수한 것을 초월하여 보편성에 이르게 된다. 낭만적인 자아의 시가 이처럼 어떤 정신의 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관한 한 말라르메가 이미 그 모범을 보여준 바이다. (밑줄: 인용자)

이 논의 속에 드러난 요점을, 첫째, 시어의 속성에 관한 것, 두 번째 궁극적인 시의 의미세 번째 작시 과정의 의미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 시어는 의사전달의 도구(산문의 언어)가 아니며, 암시력과 심리적 창조력 혹은 음악과 이미지의 통일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다. 두 번째 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독자가 고차원적 삶을 동경하게끔 철학적 반성을 요구하는 “초자연” 그 자체다. 즉 일반적인 서정시(낭만적인 시)가 아닌 “어떤 정신의 시”에 도달한 시가 최종적 목표가 된다. 세 번째, 작시과정이란 특수성(개별성)을 넘어서 “보편성”에 도달하려는 시적 철학적 노력의 일환이다.

김중환은 앞에서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방하라’는 간단한 언어로써 그의 발레리 이해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가 이해한 발레리가, 위에 인용한 마르셀 레몽의 이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중환은 위의 글 이후에도 발레리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리고 자신이 경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이라는 인물의 발언도 자주 인용한다. 그런데 그가 인용한 브루노 타우트와 호프만스탈의 발언 내용들은 앞서 본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방하라(발

레리)”와 상당한 의미적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보면 그가 당시 이해했던 발레리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김종한이 갖고 있었던 사상의 일관적 면모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IV. 자율적 시관과 ‘최고의 순간’이 의미하는 것

김종한의 국내 문단 데뷔평론인 「나의 作詩 設計圖」는 상당히 논쟁적인 방식으로 씌어진 글이다. 논쟁의 대상은 당대 최고의 비평가로 불린 최재서인데, 김종한은 그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문학관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다.

##### 詩에 要求할 思想性

대저 데모크라시-를 연설하든 시로 맑시즘을 연설하고 다시 그것으로 知性を 연설했다고, 제군은 그런 것을 시 자체의 進化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시에 要求할 사상성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산문으로서도 가능한 관념은 아니다. / 그것은 사상이 너무도 生動하는 또는 旋律的인 내지는 非反省的인 운동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관념>(사상)이어야 한다.(바레리이)

다시 말하면 산문이 될 수없는 <그러한 관념>을 가진 부분이 시가 된다. 거기서 시문학의 獨自性和 自律性이 분화되는 것이다. 최재서씨의 詩에 대한 認識不足은 散文에 要求할 思想性을 詩에 要求하였고 다시 詩의 目的性을 思想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시의 究極은 크로포트킨의 {青年에게 주노라}라는 名文演說과 같은 것이라는 終結이 될것이야닌가.

##### 單純美의 作詩設計

최씨는 다시 主題의 詩를 主張하여(문예연감) 그의 詩文學에 對한 無知를 暴露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主題를 가진 길다란 詩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尊敬하는 건축가 부루우노.타우트博士는 確實히 최저보담은 藝術을 理解한 사람이었다.

--東洋藝術의 特質의 하나는, 藝術觀이나 世界觀을 적은 對象 중에 宇宙的인 精神으로서 感受하는 處이었다.

起林의 [氣象圖]1권의 世界와 [伐木丁丁] 4자가 內包하고 暗示하는 世界와, 諸君은 그어느것에서 더 큰 世界를 느끼는가.

**호프만 스타아르**의 광대무변한 감수성은 작시의 심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도 설명한다. <시인은 그의 印象을 그의 最高의 순간에서 다만 配列하면 그만이다. 그가 배열한 것에는 스스로 조화가 있으리로다.> / 이 最高의 순간은 시간적으로 순간이기 때문에 참의 시는 항상 적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sup>10)</sup> (밑줄;인용자)

김중환이 비판하고 있는 최재서의 글은 1938년도 시단을 총평한 「詩壇」이라는 글이다. 이 속에서 최재서는 1938년 출간된 노천명의 『산호림』, 임화 『현해탄』, 박세영 『산제비』, 윤곤강 『만가』, 김광섭 『동경』, 이찬 『분향』, 이용악 『낮은 집』 등 12권의 시집을 대상으로 1938년 시단의 총괄을 기도하고 있다. 이 속에서 그는 주제의 빈곤, 시세계의 협소함, 청년 시인들의 불건강한 시작 경향, 시론의 빈곤 등을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김중환은 이 최재서를 비판하는 한편 발레리와 브루노 타우트, 호프만스탈 등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시에 대한 자신의 理想을 설파하고 있다. 당시 제1급 비평가인 최재서의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리고 명사들의 이름을 다수 나열하는 논지 전개 방법으로 보아, 신진 비평가로서 야심적인 의도를 당시의 그가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 글 속에서 제시하는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리의 견해에 기댄 것 : 시는 산문, 사상 등 외부적 요소와

10) 김중환, 「나의 作詩 設計圖」(『文章』, 1939.9), 『全集』 384쪽.

11) 『昭和十四年版朝鮮文藝年鑑』(人文社, 1940.3), 17-21쪽. 이 중에서 특히 김중환이 문제삼고 있는 임화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林和氏의 詩가 아직 粗雜함을 免치 못하면서도 우리의 注目을 끄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커다란 내부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19쪽.

다른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시는 도구적 언어가 아니다. 시에 있어 사상이란 작품 속에 완전히 육화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브루노 타우트와 호프만스탈의<sup>12)</sup> 견해에 기댄 것: 시인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경지’는 순간적이다. 따라서 서정시의 이상형은, 예술관이나 세계관이 압축적으로 형상화된 短形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정지용의 「長壽山」의 “伐木丁丁”과 같은 대목이 그 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종한이 문학의 자율성과 독자적인 미학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는 소위 ‘형식주의자’로 불릴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형식주의’가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종류의 형식주의와는 다른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는 그 나름으로 중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종한이 인용한 호프만스탈의 발언 중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호프만스탈 인용문과 앞장에서 인용한 발레리의 인용문을 나란히 배열해 본다.

시인은 그의 인상을 그의 최고의 순간에서 다만 배열하면 그만이다.  
(호프만스탈)<sup>13)</sup>

12) 브루노 타우트(1880-1938): 독일 건축가. 1933년 일본인터내셔널건축회의 초청으로 독일 가즈라 리큐(桂離宮)을 둘러본 뒤 영원한 미의 구현체라고 찬탄하였다. 일본미를 세계에 알린 ‘일본미의 전도사’로 불린다.

호프만스탈(1874-1929):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시인. 예술스타일의 면에서는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거쳐 상징주의에 도달하였으며, 理念의 실현을 꿈꾼 시인, 영원성과 자기 내면 탐구의 시인, 존재론적 탐구의 시인 등으로 불린다. 板倉ともね譯『ホフマンスタール詩集』(思潮社, 1968) プエルナフォルケ(横山滋 譯) 『ホフマンスタール』(理想社, 1971, 호프만 스탈(조두환 역), 『지나가는 사람에게』(해원출판사, 1992) 후기 및 해설 참조.

13) 인용 근거 불명. 당시 출판된 호프만스탈 서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일부분을 인용한다.

“혼의 진(眞)체험, 마법의 언어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언어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中略]혼의 풍경이란, [中略] 너무나 심하게 서로 뒤얽혀 있어 빛을 상실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질식되어버린 무수한 생명의

예술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모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간요하다.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발레리)

위의 두 인용문에서 공통되는 것은 “최고의 순간”, “자신의 최고의 상태”라는 정신적 범주다. 이 “최고의 상태(순간)”라는 것은 체험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재현이 불가능한 세계일 터이니 논리적 설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말라르메나 발레리가 시 작업을 통해서 추구해나갔다고 하는 ‘일종의 깨달음의 상태’ 내지 “제신을 닮고자 하는 기도”와 상관성이 있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청년시대의 김종한이 일본대학 시절 겪은 문학체험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 “최고의 순간(상태)”이라는 용어 속에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그가 인용한 브루노 타우트 속에서는 위와는 다소 다른 표현이 발견된다. 그것은 ‘최고의 순간’을 그린 시가 갖춰야 할 형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김종한이 인용한 브루노 타우트의 부분,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출판되었던 부르노 타우트의 저서 속에 수록되어 있는 유사한 구절들을 나란히 배열해 본다.

東洋藝術의 特質의 하나는, 藝術觀이나 世界觀을 적은 對象 중에 宇  
宙의인 精神으로서 感受하는 곳이었다. (김종한)<sup>14)</sup>

무리들인 거지. 생명들이 서로 뒤엎혀 덩어리져있는 이 심연을 날날이 비춰내서 그 생명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모아서 은하수를 출현시키는 것이 가능한 때는 어느 한 순간뿐이야. 그리고 이 순간에 완전한 시가 탄생하는 것이지. [중략] 그런 시가 다소나마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얼마간의 언어가 병렬해 있다가, 두들기면 검은 돌에서 불꽃이 피듯, 거기서부터 밤하늘과 같이 무한한 혼의 풍경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 말이지.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대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의 감각이, 그 광경을 보려고 소생하는 듯한 풍경인 거야.” 호프만스탈(富士川英朗 譯) 『호프만스탈 文芸論集』(山本書店, 1942.6) 100-101쪽.

14) 인용근거 불명.

예술은 의미다. / 최대의 단순 속에 최대의 예술이 있다. (부르노 타우트)

芸術は意味である。/最大の單純の中に最大の芸術がある。

예술의 미는 단순한 형식의 미가 아니라, 그 배후에 무한한 사상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있음을 느낀다. (芸術の美は單なる形の美ではなく、その背後に無限の思想と精神のつながりとの存するを感じるのである。)(브루노 타우트)<sup>15)</sup>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의 단순한 형태 속에 무한한 우주적인 세계를 담을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김중환이 갖고 있었던 시의 이상형이 무엇이었던 것인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논의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짧고 단순한 형태 속에 무한히 우주적이면서도 시인 개인이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김중환이 제시하려 한 이상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명제들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내적 체험이나 실천과정의 결과로 결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젊은 문학도들에게도 또 다른 매력의 대상으로 비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명제들이, 장기간의 수행이나 인격적 성숙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단순해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환상을 문학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대의 야심적인 문학도 김중환은 아마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명제들에 매료되었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상당 정도로 이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했거나 혹은 그렇게 된 것처럼 과시를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착각 내지 과욕이 없었다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함경북도 오지 출신 문학도가 당대 최고의 평론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15) 블루노타우트(篠田英雄역) 『日本美の再発見』(岩波新書,1939.6) 각각 목차 이면, 129쪽.

것이 아닐까.

## V. 純粹詩의 이상과 현실

이 '최고'의 경지에 대한 김종한의 논의는 후속 논의들 속에서 반복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순수시'라는 용어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감정의 표출** : 최재서의 高評에 의하면 임화의 시가 아직 조잡함을 면치 못하면서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커다란 '내부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388) / 임화에게 어떠한 내부세계가 있는지는 내가 알바가 아니고, 임화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사상이라도 사상 자체는 직접으로는 시와 관련상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

어즈버 「**最高の瞬間**」에의 **지향과 염원을 가지지 못한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적 범열」이나 「神에의 일치」나 「氣運生動」이나 또는 「無邪念」, 「眞性」 등의 용어로 번역하여야 좋습니다. / 순수시의 이론도 쉽게 말하면 寒山詩의 서문인 「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에 가미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 고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뇌를 어떻게 수리하며 예술성에까지 승화시키는가, 하는 곳에 문학의 본령이 있는 것입니다.....

**寒山道 無人道** 시문학의 正道를 걷는 참의 시단의 신세대들이여. 高慢하라. 비로-드 의복을 입고 가슴에 해바라기꽃을 차고 진고개 골목을 거닐만큼 高慢하라.<sup>16)</sup>(밑줄 : 인용자)

최재서는, 형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은 임화의 시의 이면에서, 민족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지향하는 그 나뭇의 '최고의 세계'를 보아냈

16) 김종한, 「詩文學의 正道」(『文章』1939.10), 388쪽.

던 것 같다. 김종한은 이 세계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이유는 하나다. 시가 미숙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앞서 논의해 온 바 ‘사상의 육화론’이나 발레리의 시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밑의 기술 내용을 보면, 김종한이 이런 논지를 편 이유 속에, 어딘가 그가 갖고 있는 사상적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경지라고 불려온 세계를 다른 용어로 번역하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시적 法悅, 神에의 일치, 氣運生動, 無邪念, 眞性, 寒山詩의 구절들이 그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기독교, 선불교, 유교 등의 종교적 체험의 세계 내지 관념론적 사상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것들이다. 모두 개인의 내면에 대한 정신적 탐구와 수행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고차원의 세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령 그가 ‘순수시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한 한산시의 서문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 檜食繼日廉 詔曲登時正  
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

(이제 내 시를 읽는 그대들이여 / 모름지기 마음속을 깨끗이 하라 /  
탐욕은 날을 따라 청렴해지리 / 아침은 때를 좇아 바르게 되리 / 휘몰아  
모든 악한 업을 없애고 / 부처님께 돌아가 진성을 받자. 오늘 이 생에서  
부처 몸 이루기를 / 빨리 서둘러 꾸물대지 말아라)<sup>17)</sup>

악업을 구제하여 청정한 본래의 마음(진성)을 회복하여 부처를 이루자는 이 구는 불가의 수행론의 대중판이다. 김종한이 이러한 수행의 세계를 얼마나 체험했는가 하는 점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소위 관념론적 사상이 ‘최고의 사상’이며, 이런 것이 시화되어 있는 세계가 최고의 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음은 이상적인 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김종한의 속생

17) 최동호 편, 『金達鎭全集 寒山詩』(문학동네, 2001), 19쪽.

각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의 사상적 편향이라 할 만한 요소 역시도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를 광의로 寫實主義의 시대라고 말할수있다면 그것에 결합시킬 시단은 당연히 『純粹詩』등의 超俗의인 이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明日의 西洋詩의 正統도 포오, 마라르메, 보오들레에르, 바레리이 등을 연결하는 순수한 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근대시는 어느 시대에서나 超俗主義란 특이성으로 그 시대의 문화의욕에 참고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단에서는 『문화의욕』의 그릇된 해석으로 低腦無智한 시인들이 自然主義에 데모크라시이의 沒詩觀念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때에 활약한 23인의 시인들은 演說草案 같은 시를 써놓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모크라시이란 미국이 背獨宣傳의 프로파간다로 정책적으로 유포시킨 輕薄無比한 사상인 것입니다. 문학정신이 되기에다 너무나 속악한 그 사상이 어떠한 고귀한 시적 이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충실한 맑스의 제자들은 위대한 속물인 맑스의 배설물을 시적 이념으로 오신하고 시의 예술성을 선전비라에까지 低落시켜버렸습니다. / 문화의욕의 그릇된 해석을 그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기림의 『기상도』는 3面記事性을 시적 이념이라고 생각했고, 김광섭의 소위 『추상된 세계』도 작품을 따져보면 이 계통에 속하는 것이 없습니다.<sup>18)</sup> (밑줄:인용자)

이 글 속에서 김중환은 바람직한 시단의 모습으로 '超俗적인 理念의 純粹詩'가 지배하는 시단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超俗의인 理念'이란, 발레리식으로 말한다면, '범연한 사고를 초월한 이상적 정신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김중환은 이러한 '超俗적인 純粹詩'가 근대 서양시의 주축을 이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일본 유학시대에 접한 요약적 지식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18) 김중환, 「詩壇改造論」(『朝光』 1940.3), 403-404쪽.

이어 그는 자연주의, ‘경박무비하고 속악한’ 미국식 데모크라시를 비판한 후 마르크스주의와 프로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위대한 속물 마르크스가 낳은 배설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을 ‘시적 理念’으로 오인하고 선전물로 전락해버린 것이 ‘프로시’라고 보고 있다. 김종한의 사상적 편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마르크스주의는 전적인 부정의 대상이다.

문학적 형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프로문학이 식민지 조선사회 속에서 강력한 생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임화의 시 속에는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런 임화에 대해 최재서는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젊은 야심가 김종한은 이런 점을 고려할 수 없을 만큼 발레리 숭배에 빠져 있었든가 혹은 모종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든가 했던 것이 아닐까. 당시가 마르크스주의 열풍이 가라앉은 시대였다고는 해도, 그 사상이 조선사회 속에서 의미하는 바 내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내지 경의 같은 것이 김종한에게는 현저하게 부족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는 일본대학 재학 중 『자본론』 등을 읽어본 적은 없거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담긴 요약적 담론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추측해 본다.

어쨌든 이러한 강성 일변도의 주장을 김종한이 계속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김종한 나름의 확신의 세계가 뒷받침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앞서서도 확인해 온 바, ‘최고의 정신의 세계’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문학의 세계가 ‘순수시’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는 30년대 말기의 식민지 조선문단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이 강변해 온 발레리의 순수시론을 실제 시 속에서 예를 제시하는 국면에 이르면, 김종한의 논조는 갑자기 변한다.

(김중환)

그러나 당신(발레리;인용자)의 시론도 작시의 실제에는 의외에도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선말로서는 「순수」한 시는 쓸수 있어도 『순수시』는 쓸 수 없지나 않을까 절망도 해보았습니다.

芝溶의 一代는 Naked Poetry의 朝鮮式 완성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詩論과 화가 마티스의 쓰타일과 독일낭만파의 정신을 지양하여, 조선말로 쓸 수 있을 Pure Poetry를 창조해보려고 합니다. 십년후에나 결실될런지요.

이것은 탄말이나 기림 임화 재서 등은 밤낮 우리들의 시에 「思想」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가요 정직히 고백하면 내심으로는 一二次 반성도 해보았습니다.<sup>19)</sup> (밑줄;인용자)

이 글의 각 문단은 앞의 문장들과는 다르게, 일정한 논리적 단절이 있다. 김중환이 논리적 조작보다 자신의 속내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발레리의 ‘최고의 시’론을 근거로 한국 시사의 현실을 맹렬하게 비판해 온 김중환은, 그 발레리의 순수시를 한국시의 현실 속에서 예시를 해야 하는 대목, 그리고 역시 시인인 자신이 이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대목에 이르자, 태도가 일변한다. “작시의 실제에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가 하면 곧장 지용을 ‘순수시의 조선판’이라고 예시를 하고, 앞에서 맹공을 가했던 ‘사상’의 빈곤을 자신도 느낀다는 이야기도 고백한다.

그의 기세등등한 「詩壇改造論」속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논리적 혼란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애초에 제시한 시의 발레리적 이상형은 ‘종교적인 것에 가까운 윤리적 수행을 거쳐 완전한 인격체를 이룬 자의 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왕의 시를 비판할 때에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전거를 제시한다거나 자신의 창작시로 그것을 입증하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을 베는 무기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지용의 일대가 순수시의 조선식 완성”이라는 대목, 그리고

19) 김중환, 위의 글, 406쪽.

자신도 순수시를 10년 후에 결실해 보겠다는 내용은 어딘가 미봉책적이다. 지용이 30년대 시사의 거목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한 그를 문단에 내놓아준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가 위대한 수행자 시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up>20)</sup> 아마 정지용이, 김중환이 이야기하는 바의 순수시에 근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발레리식 순수시보다는 “최대의 단순 속에 최대의 예술이 있다”는 브루노 타우트적인 개념에 일부 걸치는 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김중환이 이러한 ‘순수’한 문학관을, 후일 그가 빠져들게 되는 시국(時局) 문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 혹은 변형, 혹은 타협해 나아갔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금후의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 VI. 결론

김중환은 1940년대 ‘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지방주의’만 주장했던 평론가가 아니다. 그에게는 전혀 상이해 보이는 문학관을 설파하던 시기가 있었다. 일본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국내 문단에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그것이다. 당시 그는 발레리, 브루노타우트, 호프만스탈 등 일본에서 접한 서구 문학 및 예술 체험을 기반으로 조선 시단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보겠다는 의욕적인 평론활동을 폈다.

그는 발레리 체험을 통해서, 시의 독자성과 자율성, 그리고 ‘최고의 상태에 이른 자신을 모방하라’는 원리를 소개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20) 정지용 시의 사상성에 대해 극단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국내 평자가 없지 않다. 「백록담」이 「명징의 경지」 「무욕의 철학」의 소산이라고 평가한 김우창의 「한 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이 그런 논의의 발원지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심원섭, 「정지용론, 명징과 무욕의 이면에 있는 것」,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48-55쪽 참조.

서 완벽한 인격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찢어지는 시를 이상적인 시라고 주장했다. 부르노 타우트와 호프만스탈을 원용하면서도, 시인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을 압축적 형태로 표현하라, 단순 속에 무한을 표현하라,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의 상태를 종교적 범열이나 신과의 합일, 깨달음 등의 수행문화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적 시의 상태를 종합하여 '순수시'라고 명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서 '순수시'를 실천한 모범적 예로 정지용을 들었으며, 사상을 예술적 형상성의 위에 놓는 프로시 계열의 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경우는 '순수시'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유보조건을 달았다.

그가 당시 시의 이상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내용의 골자는, '종교적 수행에 근사한 내적 수행을 거쳐 완전한 인격에 이른 자가 압축적 형식으로 우주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일체의 인간적인 제조건을 초월해가는, 혹독한 내적 수행의 세계'다. 그러므로 그가 제기한 시의 이상형은, 단기간에 완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김종한 자신도 그 실천을 기약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시론을 설파했던 그는 1942년 귀국하여 『국민문학』의 공동편집자가 되어 유명한 '신지방주의론'의 설교자로 변신한다. '명상적 철학도가 되어야 할 '발레리 송배자'가 시국적 담론들을 꾸준히 생산해내야 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俗'적인 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 '김종한의 발레리'가 이 광풍의 시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한 계속적 고찰을 후속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 참고문헌

### 자료

藤石貴代, 大村益夫, 沈元燮, 布帶敏博 공편, 『金鍾漢全集』 綠蔭書房, 2005

### 논문 및 단행본

-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 심원섭, 「정지용론, 명징과 무욕의 이면에 있는 것」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작가 연구』 평민사, 1999. 48-55쪽.
- 심원섭, 「金鍾漢의 초기문학 수업 시대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46집, 2007.8. 309-333쪽.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232-233쪽.
- 최동호 편, 『金達鎭全集6 寒山詩』 문학동네, 2001. 19쪽.
- 호프만 스탈(조두환 역),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원출판사, 1992.
- 마르셀 레몽(金華榮 역), 『프랑스 현대시사』 문학과지성사, 1983.10. 200-211쪽.
- 『昭和十四年版朝鮮文藝年鑑』 人文社, 1940.3. 17-21쪽.
- 大村益夫, 「金鍾漢について」 『旗田巍先生朝鮮歴史論集, 下』 1979.3.
- 大村益夫, 「세 시인의 궤적」 인하대학교 강연원고, 2007.6
- 佐藤正彰篇 『世界文豪讀本ブアレリイ篇』 第一書房, 1938.6. 222쪽.
- 久野修, 鶴見俊輔(줄역), 『日本近代思想史』 문학과지성사, 1994. 11-32쪽.
- ブルーノタウト(篠田英雄 譯) 『日本美の再發見』 岩波新書, 1939.6. 목차 및 101쪽.
- ホフマンスタル(富士川英朗 譯) 『ホフマンスタル文芸論集』 山本書店,

1942.6. 100-101쪽.

板倉ともね(譯) 『ホフマンスタル詩集』 思潮社, 1968

ブエルナフォルケ(横山滋 譯) 『ホフマンスタール』 理想社, 1971

<Abstract>

## 金鍾漢の日本留學体験と‘純粹詩’の詩論

－ バレリー、ブルーノ・タウト、ホフマンスタール体験と關連して －

沈元燮

金鍾漢は1940年代の‘時局’の渦巻きの中で‘新地方主義’を主張する評論家だただけではない。彼にはまったく異なる文學觀を説破していた時期がある。日本大學を卒業し、しばらく日本に滞在しながら、國內文段に詩や評論を發表しはじめた時期がそれである。当時の彼はバレリー、ブルーノ・タウト、ホフマンスタール等、日本留學中に接した西歐芸術体験を元に朝鮮詩壇に旋風を呼び起こそうという意欲があった。

彼はバレリー体験を通しては、詩の自律性、‘最高の状態に至った自分を模倣しろ’という原理を紹介した。それから修行を通して完璧な人格のレベルに至った状況で出てくる詩が理想的な詩である、と主張した。ブルーノ・タウト、ホフマンスタールを引用しながらは、詩人に瞬間的にやってくる‘最高の瞬間’を壓縮的な形態に表現しろ、單純の中に無限を表現しろ、と主張した。後、このような詩の状態を宗教的法悦や神との合一、悟りなど修行文化に譬え説明した。彼は以上のような理想的な詩の状態を綜合し、これを‘純粹詩’と命名した。

彼は韓國で‘純粹詩’を實踐した模範的な例としては鄭芝溶を擧げる一方、思想を芸術的な形像性の上に置くプロ詩系列の詩には強い拒否感を示した。自分の詩の場合は‘純粹詩’に到達するまで、10年がかかるという留保条件もつけた。

彼が当時詩の理想型とすべきだと考えていた詩の骨子は‘宗教的修行に類似した內的修行を通し、完全な人格に至った人が、壓縮的な形態の中

に宇宙的・無限なるものを表現すること'と 要約可能である。しかしこの世界は'一切の肉體的な諸條件を超越していく, 厳しい精神的な修行の世界'である。したがって彼が提起した詩の理想型は、短期間に完成できる性質のものでないのは言うまでもなく、金鍾漢本人もその實踐を期約できない'理想'にすぎないものであった。

このような理想的な詩論を説破していた彼は1942年『國民文學』の共同編集者になる時期を前後して、有名な'新地方主義論'の説教者に変身する。'冥想的哲學徒'になるべきだった'バレリー崇拜者'が戦争のための理論を生産せざるを得ない、当時としてはもっとも'俗'的な世界の中へ進入するのである。'金鍾漢のバレリー'がその強風の時代の中でどんな形存在していたか、その点についての継続的な考察を後の研究課題にしたい。

Key Words : Kim, Jonghan, Pro-Japanese Literature New localism, pure poetry, Vallery, Bruno taut, Hugo von hofmannstahl,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Cheong, jiyong, Im-Wha